

# 청소년기 독서의 진미 맛볼 유일한 시간

##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의 책읽기

조대현

용산공고교사 · 작가

고등학교 생활은 겉으로 보아 중학교 시절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 변화가 나타난다. 우선 과목 수가 중학교 때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고 그 내용 또한 깊고 세분화된다. 따라서 학습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는 데다가, 당장 코앞에 닥친 대입고사의 중압감이 항상 머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실제로 고2쯤 되면 취미활동이나 독서 같은 것은 엄두도 내기 어렵다. 그저 지나가듯 두꺼운 학습참고서를 외다 마는 것이 고교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지나친 말일까.

이와 같이 학과공부에도 늘 쫓겨야 하는 것이 고교생활이기 때문에 고입시험을 마치고 입학식을 기다리는 휴식기간이야말로 중학교를 마치는 예비고교생들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이 기간에 특히 독서를 강조하는 까닭은 2가지 큰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이 기간에 책을 읽어두지 않으면 다시는 청소년기 독서의 진미를 맛볼 시간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단 고교생이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학과공부에도 시간이 모자라고 대학생이 되면 그때 또 읽어야 할 전문교양서적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고 나면 청소년 시기에 읽어야 할 도서를 다시 접할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만다. 독서도 공부와 마찬가지로 여섯 그 시기에 읽을 책을 읽지 않고 넘어가면 마치 중간에 공부를 빼먹은 사람처럼 나중에 허둥거리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무지를 후회하게 된다.

둘째는 학습상의 필요성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되면 세계의 문화나 철학, 또는 한국의 문학사 등 폭넓은 교양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독서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어」에서 우리나라 문학사를 배우게 되는데 이때 학생들은 수많은 문학과 작품 이름을 처음 접하게 된다. 만약 독서 경험이 풍부하여 미리 그 작품을 읽어둔 학생이라면 재미있게 국어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작품 내용도 모른 채 작가와 작품 이름만 암기하다 말 것이다. 그렇게 하는 공부야 무슨 재미가 있으며, 그렇게 익힌 지식이 우리의 교양을 넓히는 데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 학습과 관련된 현대문학부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에게 나는 우선 학교 공부와 직접 연관이 되

고 누구나 교양으로 읽어두어야 할 우리나라의 현대문학, 그 중에서도 단편소설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던 때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후 7,80년대까지 나온 단편소설을 시대순으로 정리해 놓은 문학전집이 서점에 여러 종류 나와 있다. 그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체계적으로 읽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약 그렇게 계통을 세워 읽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다음 작품만이라도 꼭 읽기 바란다.

김동인의 「감자」 「배따라기」 「광화사」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 현진건의 「빈처」 「운수좋은 날」 전영택의 「화수분」 나도향의 「물레방아」 박영준의 「모범 경작생」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김유정의 「봄봄」 「동백꽃」 계몽묵의 「백치 아다다」 유진오의 「김강사와 T교수」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이상의 「날개」 정병석의 「성황당」 김동리의 「무녀도」 「황토기」 「홍남철수」 김정환의 「사하촌」 이무영의 「제1장 제1과」 오영수의 「갯마을」 「머루」 김성환의 「암야행」 「오분간」 전광용의 「흑산도」 「까뽀뽀 리」 정한숙의 「금당벽화」 황순원의 「학」 장용학의 「요한시집」 선우휘의 「불꽃」 이범선의 「학마을 사람들」 「오발탄」 유주현의 「장씨일가」 하근찬의 「수난2대」 등.

이런 작품들은 읽는 것 자체가 재미있을 뿐 아니라 읽으면서 시대와 삶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청소년기 정신성장에 자양분 구실을 하며 대입 시험공부에도 요긴한 자료로 쓰이게 된다.

문학에 좀더 흥미가 있는 학생이라면 이 기회에 한국 현대시도 읽어두는 것이 좋다. 현대시 역시 시대별 경향별로 정리해 놓은 책이 여러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 김희보 엮음 「한국의 명시」를 권한다. 현대시는 문예사조의 흐름을 알고 읽어야 이해가 가기 때문에 중3 수준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책을 한 권 책상머리에 갖춰두면 앞으로 학교공부에 길잡이가 되고, 반복해서 읽다보면 소설과는 다른 운문문학의 맛을 어렵지 않게 터득하게 될 것이다.

외국 작품으로 요즘 고교생들이 많이 읽는 것으로는 「노인과 바다」 「어린왕자」 「갈래기의 꿈」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 등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길이가 짧으면서도 '사람이 왜



고등학교에서 익혀야 할 폭넓은 교양은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사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한가지만 더 권한다면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들고 싶다. 청소년기에는 누구나 다 이상과 현실, 이상에 대한 호기심과 자의식 등 사춘기에 찾아오는 회의와 갈등 때문에 정신적 방황을 하게 된다. 이 책에서 우리는 그런 주인공을 만나 그가 어떻게 청소년기의 방황을 극복하고 이성과 감성이 조화된 균형잡힌 젊은이로 성장하게 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역시 중3 수준에는 어렵겠지만 지금 읽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읽으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건전한 인격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문화 중심의 역사·전기물 등 폭넓은 교양을

문학과 함께 고교시절 독서의 또 한 부분을 크게 차지하는 것은 역사·전기를 포함한 일반교양에 관한 독서다.

이제까지 중학교에서는 주로 한 나라가 일어났다 쓰러지고 어떤 제도가 있었다는 식의 정치 중심 역사를 배웠을 것이다. 위인전기 또한 업적중심의 나열식 독서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고교생이 되면 정치보다 문화 중심의 역사를 더 깊이있게 공부해야 되고, 위인전기도 업적이나 일화보다 사상과 정신을 배우는 방향으로 독서의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

역사분야의 도서로는 교양국사연구회 엮음 「이야기 한국사」를 권하고 싶다. 이 책은 딱딱한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 사회 문화 인물 등 다방면에서 우리의 역사를 조망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배운 역사지식을 정리하고 문화사 중심의 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 줄 것이다.

위인전기로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와 김동길 교수의 「링컨의 일생」을 권한다. 앞의 것은 구한말의 어지러운 국내정세 속에서 한 독립투사가 어떤 고난의 길을 헤쳐왔는가를 감명깊게 보여줄 것이며, 뒤의 것은 민주주의의 아버지인 링컨이 자기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지혜로운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두 책 다 고난을 이기고 보람된 삶을 성취하려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인생 지침서가 될 것이다.

고교시절 독서생활에서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과학분야의 독서다. 이 분야의 도서로는 주동일 지음 「과학의 길」과 M. 일리인 지음 「인간의 역사」 「자연의 ABC」를 권한다. 앞의 것은 현대과학이 가야 할 길을 기술과 철학 양면에서 통찰한 내용인데,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하다. 뒤의 두 가지 책은 러시아의 아동문학가인 저자가 역사와 과학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하고 직접 현지답사와 관찰을 한 뒤에 청소년을 위하여 저술한 도서로, 여러가지 과학 현상과 문명발달의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어려운 과학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교 신입생들 중에는 앞으로의 3년 과정을 끝으로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될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런 학생일수록 앞에 예시한 작품이나 도서를 꼭 읽어주기 바란다. 그러면 장차 사회인이 된 뒤에도 수많은 책 중에서 양서를 골라 읽는 안목을 기르게 될 것이다.